

9인 3색 한중일 3국 기자 연합 취재기

NEWSIS

문예성 기자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環球時報] 주최, 한중일 3국 공동취재 행사에 참여한 기자들이 2016년 11월 9일 중국 전기차 회사 비야디 선전 본사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서로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 닮은 듯 다른 한중일 3국 기자들이 같은 현장에서 함께 취재한다면 어떻게 다를까, 필자는 2016년 11월 이런 독특하고 이례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바로 중국공산당 기관지(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추스바오와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공동 주최로 이뤄진 한중일 3국 공동취재 프로그램을 통해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환추스바오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3개국 언론사 기자 2~3명을 초청해 매년 한 가지 주제를 정해 3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취재하는 형식

을 취하고 있다.

필자가 참여한 2016년 프로그램에 한국에서는 뉴시스, 한국경제, 코리아헤럴드에서 기자 3명과 중국에서는 환추스바오, 21세기경제보도, 신랑왕, 일본에서는 지지통신, 마이니치, 도쿄신문 소속 기자들이 참여했다.

중국에서는 '중국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중관춘[中關村], 징둥, 화웨이, DJI, 비야디(BYD),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오사카혁신센터, 와세다대학교로봇연구소, 한국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경기창조

경제혁신센터 등 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취재를 진행하게 됐다.

기자들의 색깔에서 반영된 3개국 국민성

우선 이번 취재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기자들의 색깔에서 3개국의 국민성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점이다.

일본 기자들은 일정 내내 상당히 조용하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지지통신 기사를 뺀 나머지 2개 일본 언론사의 기자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조용한 편이었다.

반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중 양국 기자들은 대부분 수다스러웠다. 이런 이유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한국과 중국 기자들은 쉽게 친해졌다.

취재 현장을 이동할 때 주로 25인승 버스를 이용했는데 차량 앞부분을 차지한 한중 기자들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에 심지어 ‘보디랭귀지’ 까지 동원해가면서 수다를 떨었다. 가끔 어설픈 ‘콩글리시(한국식 영어)’와 ‘챙글르시(중국식 영어)’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반면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環球時報] 주최, 한중일 3국 공동취재 행사에 참여한 기자들이 2016년 11월 9일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선전 본사에서 취재하고 있다.

일본 기자들은 차량 뒤편에 모여 앉아 자신들끼리 소곤소곤 대화를 나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를 잘 지키는 일본 기자들은 출발, 식사 등 예정된 지점에 제때에 나타났지만, 중국 기자들은 몇 번 늦었다.

일본 기자들은 공식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자유롭게 참석하라는 저녁 시간에도 인솔자와 함께했다. 반면 한국 기자들은 방문하는 지역마다 지인들이나 자사 특파원을 만나느라 저녁 시간이 더 바빴다.

단합 측면에서도 3국 기자는 달랐다. 중국 기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도 서로 챙기면서 톨툴 뭉친

느낌을 줬다. 일본 기자들도 상대적으로 느슨해 보였지만 단합된 모습이었다. 반면 한국 기자들은 가장 단합되지 않았고, 서로 약간의 견제와 함께 쉽게 경계를 풀지 않았다. 중국과 일본 기자들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한국 기자들은 일단 기사 작성, 송고 및 출고 시간부터 정했다.

상대방에게 절대 뒤질 수 없다는 생각에 필자를 포함한 한국 기자 3명은 3국 기자들 가운데 가장 빨리 가장 많은 기사를 생산했고, 이로 인해 3명이 쓴 기사는 전체 9명이 쓴 기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중국과 일본 기자들은 귀국 후 바로 보도하지도 않았고, 취재한 데 비해 소량만 보도했다. 환추스바오 기자는 심지어 몇 달 뒤 관련 주제의 기사에서 이번 프로그램 일정에서 취재한 내용을 녹여 보도하기도 했다.

3국 기자들의 취재 스타일도 많이 달랐다. 일본 기자들은 짜인 틀 안에서 한 치의 오차 없는 취재를 했고, 중국 기자들은 모습도 제각각 자유롭게 취재했으며, 한국 기자들은 중일 기자 사이 어느 지점에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3개 다른 지

역, 다른 언론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3명 일본 기자들은 동일한 브랜드 같은 규격의 노트북과 녹음기를 사용했다. 일본에서는 기자들이 취재 시 사용하는 특정 브랜드의 특정 기종 노트북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아울러 일본 기자들은 습관적으로 무엇이든 지수첩에 꼼꼼히 적었지만 한중 양국 기자는 그렇지 못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바로 일본 사회 전체가 한중 양국에 비해 규칙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각 기자마다 수십 개의 3개국 명함을 받았다. 다른 업종 분야의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에게 받은 일본 명함임에도 불구하고, 1mm도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사이즈가 똑같았다. 반면 한중 양국의 명함은 크기가 들쭉날쭉, 디자인도 모두 달랐다.

일본과 중국 기자들은 자신들의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을 했지만 관심 없는 문제는 조용히 기록만 했다. 반면 한국 기자들은 관심의 폭이 매우 넓어 모든 취재 현장에서 많은 질문을 했다.

일본 기자들은 선전시 소재 중국 최대

전기차 회사인 ‘비야디’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그들은 오기 전에 이미 상당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이들은 몇 개 관심 대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온 것 같았다. 비야디 공장에서 약 40분 동안 진행한 질의문답 시간에 일본 기자들은 많은 질문을 쏟아냈고, 취재가 끝난 이후 식사 자리에서도 취재를 이어갔다. 사진 촬영이 금지된 공장에서도 수차례 촬영이 가능한지를 확인했다.

반면 한중 기자들은 취재가 끝난 식사자리에서 사적인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당신네 나라에는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어떤 술이 유명한지” 등등이 주제인 대화였다.

이 밖에 중국 기자들은 팩트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과 일본 기자는 수익률, 비용 등 숫자에 민감했다.

3국 기자들의 ‘정감 지수’도 달랐다. 한중 기자는 정이 많았지만, 일본 기자들은 그들 나라 국민처럼 정이 없었다. 한중 양국 기자들은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몇 달 동안 SNS로 연락을 이어갔다. (일부는 현재까지도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판시(관계) 유지로 유명한 중국 기자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중국어를 아는 한국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으려 했다. 반면 일본 기자들은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사요나라(안녕히)’했다.

차이를 뛰어넘은 기자 마인드

그러나 색깔이 제각각이던 우리는 결국 2주 동안의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 ‘동지’가 됐다. 이런 차이를 뛰어넘은 것은 동일한 기자 마인드, 즉 기자로서의 감성과 공감력이었다.

3국의 사회 분위기, 특별히 언론 분위기가 매우 다르지만 기자는 고달픈 직업이라는 사실은 동일했다. 박봉, 고강도 노동, 기자로서 쓸데없는 자존심 등 공통점이 존재했다.

자유분방했던 중국 기자들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던 일본 기자들도, 질투심이 많았던 한국 기자들도 결국 ‘천성(天性)’은 ‘기자’였다. 부조리와 불의에 흥분하는 모습은 동일했고, 만남과 이별에 덤덤한 것도 닮았다.

중국 사회 전체의 노동 강도는 한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環球時報) 주최, 한중일 3국 공동취재 행사에 참여한 기자들이 2016년 11월 8일 중국 웨어러블 스타트업 화미 테크놀로지 베이징 본사에서 회사 대표를 인터뷰하고 있다.

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기자들의 노동 강도는 한일 양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 같았다.

국제뉴스 담당인 신량왕 기자는 밤샘 작업으로 몇 개 프로그램의 제작을 마친 후에야 프로그램에 합류할 수 있었다. 피로 누적에 몸살까지 겹친 이 기자는 프로그램 일정 내내 힘들어했다.

중국 경제 전문 언론인 ‘21세기경제보도’ 기자는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때쯤 자국의 언론 검열 제도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소신대로 기사를 쓸 수 없고 쓰더라도 검열로 보도가 되지 않는다면 ‘언론 자유’를 누리는 한국

과 일본 기자들이 너무 부럽다고 속마음을 털어냈다.

2주간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기자라는 동질감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이해하게 됐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다. 마지막 한 잔의 술로 건배하고 포옹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2주간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년 넘게 지난 오늘 필자는 여전히 함께했던 기자 동료들이 그립다. 그들은 아마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색깔을 지닌 기사를 쓰고 있을 것이다. 🍷